

전국 산업현장,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실시

- 4월부터 6개월간, 위험 기계설비 보유, 유해 화학물질 사용, 근무형태 등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산업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하여 전국 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9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총 조사대상은 '09.1.1일 기준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12만 개소이며 조사전문기관을 통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04년도에 이어 5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수 조사(10만 개소)로, 5인 미만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각 1만 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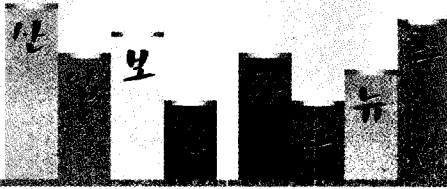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유해·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제조업 30개 업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산업현장의 소음·분진 발생 등 유해 작업 8종에 대한 현황, 위험기계·설비 18종의 보유현황, 유해 화학물질 710종의 취급현황, 근무형태 및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에 대한 사항이다.

조사 결과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통합 DB로 구축되어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원 등 과학적인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통합 DB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정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직업병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진다.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3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6개 권역별로 조사요원 35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3월 24일부터 3일간 실시하며, 조사요원에게는 사업장 방문요령, 조사표 작성방법, KOSHANET(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을 활용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검색 및 게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교육한다.

조사요원들은 6개월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 위험기계·설비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파악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KOSHANET을 통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자료(MSDS)를 검색·출력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소에 게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반도체 사업장 자체 산업보건 임시점검 등 건강관리 강화

- 림프계질환 등 질병원인 규명을 위한 심층연구도 추진

노동부는 작년에 실시한 반도체업체 역학조사의 후속조치로 후속연구계획과 반도체업체 건강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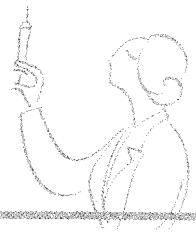
우선 작년 역학조사에서 정확한 위험도의 평가와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장기간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09-'19년까지 장기적인 심층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08년 역학조사로 구축된 코호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09-'19), 림프조혈기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작업환경 분석·평가('09-'11), 비호지킨림프종과 직업적·비직업적 요인을 연구하기 위한 「환자-대조군」연구 추진('10-'19), 미국·영국 등 유사연구를 수행중인 국가의 연구기관인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 등과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 추진('09-'12).

노동부는 심층연구를 통한 정확한 원인의 규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원인규명 전이라도 사업장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하고 근로자 건강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도체 제조업체 사업장의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우선 반도체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업보건 임시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고 사업장의 산업보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지시('09. 4월), 특히, 림프조혈기계암이 다수 발생한 업체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09.6월까지), 지방관서에서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09.10-11월), 백혈병과 조혈기계에 영향이 있다고 알려진 방사선·아르신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밀측정을 실시,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09.4-9월), 반도체제조공정의 산업보건매뉴얼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보건관리를 지원('10-'11).

이와 관련, 삼성전자 등 반도체제조업체는 '09.4.1(수) 개최된 "반도체제조업체 사업주 간담회"에서 정부의 후속연구계획 및 사업장 보건관리 강화방안에 적극 참여·협조하고 반도체업체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제산업보건위원회,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 한국개최 결정

“전세계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산업보건대회가 201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6일(목, 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 29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제 31회 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ICOH)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 세계 근로자 건강보호 및 직업병 예방 등의 정보와 정책교류를 통하여 지구촌 산업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3년 마다 개최되는 산업보건분야 최대의 국제적인 행사이다.

국제산업보건위원회 이사회는 3월 26일, 유치를 신청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3개국에 대한 최종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선정했다. 이번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의 국내 유치로 국내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국내 역량을 결집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단은 그동안 대회유치를 위해 대회유치단을 구성하고 국내 유치역량 결집을 위해서 민·관·학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의 활동을 실시해왔다. 또한 세계 각국의 산업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회유치의 당위성과 장점을 알리는 한편, 29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에서는 홍보부스 운영 등의 유치 활동을 실시해 왔다.

한편,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제 29회 대회는 ‘산업보건-작업장에서의 기본권리, 사회의 자산’을 주제로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가 참가해 세미나 및 학술행사 등이 열렸으며, 제 30회 대회는 201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리게 된다. ☺